

한국축산식품학회 창립의 숨은 공로자

초전 한석현 명예교수님

이 치 호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축산식품공학과

「축산식품과학과 산업」지에서 세 번째 연재되는 ‘한국축산식품학회를 빛낸 인물’ 기고란에 선정된 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고에서는 草田 한석현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일부분이 될 수 있지만 먼저 회원 여러분들께 우선 양해를 구하며 기술하고자 합니다.

초전 한석현 교수님의 연보는 충청남도 당진에서 출생하시어 예산농고,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하시었지만 박사학위는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 교수로 재직당시 취득하시었으며, 1968년 건국대학교에 부임하신 이래 1985년에는 축산대학 학장을 역임하시었고, 1995년에 정년을 하신 후에도 2000년까지 축산대학에서 명예교수로서 계속 강의를 하시었으며, 정년하신지 2016년 올해로 22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초전 한석현 교수님은 그 동안 대학내외는 물론 국내외에서 그야말로 교육, 연구, 봉사에 성실과 근면으로 최선을 다하신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할 정도입니다. 그 결과로 축산관련논문 63편 및 30여 명의 석·박사 제자 배출, 국민훈장인 목련장을 비롯한 10건 이상의 포상, 한국식육연구회 회장 및 한국축산학회 회장을 역임하시는 공적 외에도, 대외적으로 크게 활동하셨습니다.

교수님과 저는 사제지간으로서 지금까지 그 인연이 이어져오고 있는데, 마침 초전 한석현 교수님께서 정년 하시던 해에 제가 축산가공학과에 임용되었고, 교수님께서 1993년 11월에 「한국식육연구회」를 전신으로 한 「한국축산식품학회」가 창립될 당시 연구회 이사를 맡아서 교수님 연구실을 학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계시었는데, 1995년에 제게 학회 초기 사무 업무를 넘겨주시어 지금의 총무간사에 해당되는 업무를 시작한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학회가 축산대학 내에 독립된 사무실 공간을 얻게 되어 지금의 기반을 다지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저희 학과와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하시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평소에도 점심때에는 짜장면이나 coffee pot으로 즉석라면을 끓여 저희들과 함께 즐기시는, 그야말로 소탈한 성품으로, 퇴임 시에는 당시 1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발전 기금으로 선뜻 내어 주시었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 이후에 그 뜻을 이어 받아 후배들이 릴레이 기금을 마련함에 따라 현재에는 2억 원의 기금이 되어 저희 축산식

품공학과 제자들에게 매년 「초전 한석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제가 초전 한석현 교수님과 지냈던 1976년 이후로 교수님과의 대학생활에서 기억나는 일화를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 자상함으로 유비무환을 실천하셨던 초전 한석현 교수님

草田 한석현 교수님은 1956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하시자마자 경기도 안양 종축장에서 근무를 하시었고, 동 대학에서 농학석사를 취득하신 후 1960년에 진주농과대학 전임강사를 시작하신 후, 1968년도에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 봉입하신 이래 1995년 퇴임 시까지 특히 축산가공학 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하여 황무지인 이 분야를 개척하시는데 온갖 정성을 다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1976년도에 입학해 교수님으로부터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실험실습으로서 기초실습은 물론 육가공실습, 유가공실습, 초지학실습, 양봉학 실습, 모피 및 피혁 가공실습, 수의 해부학 실습 등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수님이 직접 지도해주신 난가공 및 통조림 가공학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계란 등을 이용한 카스테라 제조에 관해서 실습을 했었고, 실습 후 시식한 카스테라의 맛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산업적 측면을 망라해 퇴임 시 정리한 「계란의 과학과 그 이용」이라는 책은 지금까지도 강의교재로 참고하고 있으며, 난가공학의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몸소 근검절약을 실천하시었고, 연구실에서도 항상 학생들에게 “먼 날을 위해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도 그 당시 실험실습기기가 부족한 시대에도 하나둘씩 준비하시어 실험 실습실을 마련해 축산가공학 관련 실험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수님은 교내외 봉사 활동으로도 바쁘게 활동하신 분으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장, 한국축산식품학회 전신인 한국식육연구회장, 한국축산학회장, 농수산부 정책자문위원 및 축협중앙회 축산물규격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셨으며, 현재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급화가 일반화 되었지만 국내 등급화 연구의 시초가 바로 초전 한석현 교수님이십니다. 그 당시 이미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등급화를 위해서 국내외로부터 수천 페이지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시었고,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를 일일이 그림이나 사진으로 나타내어 누가 보아도 알기 쉽게 만든 자료가 지금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축산물 파동 시기에는 교수님이 직접 나서서 축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송 출연 등으로 홍보를 하시는가 하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특히 축산물 내의 콜레스테롤 연구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국민에게 알리는데도 앞장을 서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학술활동 및 사회봉사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忙中閑”을 강조하시면서도 퇴임 전에는 기존의 논문집을 대신하여 「초전낙수」라고 하는 수필집을 발간하시었고, 그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주말이면 낚시를 즐겨하시어 교수님이 계시는 동안 저 또한 낚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식품을 다루시는 교수님답게 잡은 물고기로 맛있는 라면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맛은 라면 맛 중에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그 잡은 물고기는 깨끗하게 손질해 냉동해 놓으시고 제자들이 교수님 덕에 인사를 가는 명절이면 맛있는 요리로 나오곤 했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느끼는 교수님의 자상함이야 저 이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전 한석현 교수님께서 1995년 퇴임하신 이래로 벌써 22년이 흘렀습니다.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용인 매산리의 전원주택에 사시며 크지 않은 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는데 산에서 나무를 해오시면서 매우 만족한 생활을 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사모님과 함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히 초전 한석현 교수님의 가족은 사모님은 물론 형제 자녀 역시 대부분이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는 교육계 가족으로서, 자녀들 중 맏아들인 한진수 박사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현재 동물병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둘째 아들인 한남수 박사는 충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선친의 업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5명의 손주, 손녀들이 모두 대학생이 되었고 그 중에는 이미 분당서울대병원에 간호사로 취업까지 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의 길을 이어가는 손녀도 있어서 기대감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잘 지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벌써 40년 전의 일이지만 그 당시 교수님께서 자상함과 열정으로 뿌려 놓으신 축산식품공학의 씨앗, 한국축산식품학회의 주춧돌이 되어 주신데 대하여 제자로서 감사를 드리며 본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국축산식품학회 창립의 숨은 공로자' 본 기고를 계기로 하여 식품공학, 동물생명과학대학 및 관련 산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는 심기일전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초전 한석현 교수님 가족 모임(2016년 9월)〉